

버지니아공대 美 최악의 총기 참사... 33명 사망



16일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미국 버지니아공대 노리스홀에서 경찰이 부상자들을 밖으로 후송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노래방 강도... 주부 납치... 택시기사 살해

구멍 뚫린 치안 광주는 불안하다

최근 광주 시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래방 강도와 부녀자 납치 강도 사건에 이어 급기야 택시 강도로 보이는 살인사건까지 터졌다. 연이은 강력사건에도 경찰은 범인 검거는 커녕, 유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새벽 0시 55분경 광주시 남구 사동 J미용실 앞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모(48·광주시 북구 문흥동)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 우모(여·37)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 안에 현금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운전사 김씨가 택시 강도 짓을 벌이려는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5시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모텔 앞에서 흥기를 든 2인조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김모(여·23)씨를 흉기로 위협, 1시간 가량 광주시내를 끌고 다닌 뒤 현금 225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지난 3월 26일 자정경 광주시 남구 봉산동 모 찜질방 주차장에서도 박모(여·40)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오르려는 순간 흥기를 든 2명의 남자에게 5시간 동안 납치돼 현금과 수표 등 8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기는 등 한달 새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 납치 강도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노래방 연쇄 강도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13건이나 발생했지만 경찰은 범인의 유곽조차 잡지 못한 채 범인에게 우방당하고 있다. 노래방 연쇄 강도의 경우 광주시내 각 경찰서별로 응의자가 제각각인 데다 상부 보고 체계 및 공조체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건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성을 상대로 한 납치 사건도 올 1월~3월까지 석달동안 광주시내 전역에서 38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강도사건들이 납치와 살인 등 인명을 위협할 만큼 흉포해지고 있지만, 경찰은 강력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원 파악은 물론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시민 김모(32·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강도들이 길거리, 노래방을 가리지 않고 살치고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해가는 치안 부재 상태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대체 언제나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거냐"고 질타했다. /최권일기자 cki@

“총기난사 범인 한국 교포 학생”

美경찰 “영문과 4년 조승희...범행후 자살”

▶ 관련기사 5·6면

미국 버지니아 주(州) 남서부 블랙스버그 소재 버지니아공대(버지니아텍)에서 16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인 대학생이 두 차례에 걸쳐 총기를 난사, 33명이 숨지고 한국인 대학원생 1명 등 29명이 부상하는 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내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고, 특히 교포들과 한인 학생들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과 미국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손상, 한국 교민들의 안전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웬델 플린츨 버지니아공대 경찰청장은 17일 범인이 한국 학생인 조승희(23·영문학과)씨라고 발표했다. 조씨는 영문학과 4학년으로 미국 영주권자이며,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이 학교 하퍼를 기숙사에서 거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버지니아공대 학교 당국도 범인이 한국 국적의 조승희라고 밝혔다.

강의실에서 다시 총기를 난사해 30명을 살해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구입한 9mm 권총 등을 사용했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자살했다.

이날 사건으로 이 대학 대학원생 박창민씨(토목공학과 박사과정)가 가슴과 팔에 부상을 입었다.

이승우 한인학생회장은 이 대학에는 현재 학부(300명)와 대학원 과정 등에 5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재학중이며 박씨 이외에 다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망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 최초의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조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 교내 남녀 공용 기숙사에서 여자 친구와 다들다 중재에 나선 학생지도담당과 여자 친구를 차례로 쏘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교 당국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약 2시간 뒤 공학부 건물인 노리스홀

총격 사건으로 학생들이 공포에 질린 나머지 비명과 함께 대피하느라 큰 혼란이 빚어졌으며 대학 측은 학생들의 건물 밖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캠퍼스 폐쇄 조치와 함께 모든 강의의를 취소시켰다.

학교 당국은 그러나 첫 번째 총격 이후 범인을 잡거나 직원들에게 위협을 경고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시간 가량이 지난 다음에야



<범인 조승희씨>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알렸지만 이 시점에서 조씨는 이미 공학부 건물로 이동해 2차 범행을 자행, 인명피해가

정부 “희생자·미국민에 깊은 애도”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7일 미국 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사건으로 기록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 조승희(23)씨로 확인된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충격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희생자

를 죽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66년 텍사스 대학 구내에서 총기 난사로 16명이 죽고 31명이 부상한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버지니아공대는 작년 8월 학기 개학일에 탈옥수가 교내로 숨어 든 뒤 추적 중이던 경찰관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건으로 수업이 취소되고 캠퍼스가 폐쇄됐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사건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해 들어갔으며 현재에 영사와 행정직원을 급파, 한국 학생들과 대응책 협의에 나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와 유족, 국민들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교민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전 미국 공관 및 한인 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긴밀히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4 하계 아시안게임 인천 개최 확정

인천이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됐다.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는 17일 오후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의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26차 총회를 열고 인천을 2014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대구시가 하계올림픽, 축구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인천이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 개최권까지 따내

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경우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1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5조6천억원, 고용 유발효과가 27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뉴델리 유치위원회는 참가 선수단 전원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박진표기자 lucky@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아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서로 '단축번호 1'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차! 거래처 김부장님의 목소리... 당신과의 통화가 잦아지면서 언제부턴가 당신이 '1번'이 되었지요. 마음껏 기대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같은 편입니다. 저는 늘 협력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금호아시아나 사람입니다.

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① 지탄받지 않는 경영 ② 협력사 상생경영 ③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 ④ 헌혈운동 ⑤ 문화예술 지원 ⑥ 아름다운 노사문화 ⑦ 환경·안전경영